강금실 유엔평화대 석좌교수 위촉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유엔평화대학교(University for Peace)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4일 법무법인 원에 따르면 유엔평화대학교 아시아태평양센터 학술위원회는 강 변호사가 여성 및 약자의 권익 신장에 기울여온 노력과 보편적 인권 개선에 공헌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그에게 석좌교수를 제의했다.

강 변호사는 "유엔평화대학교 아시아태평양센터가 한국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지구촌 시각에서 이해와 공존을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여성 최초로 제55대 법무장관을 지냈으며 외교통상부 여성인권 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동아시아 유도연맹회장에 최종삼씨

장성출신의 최종삼(63·용인대 교수) 대한유도회 부회장이 동아시아유도연맹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최종삼 부회장은 지난 3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동아시아유도연맹 집행이사회에서 루웨이천 대만유도협회 회장을 누르고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몽골, 대만, 홍콩, 마카오 등 8개국으로 이뤄진 동아시아연맹은 매년 동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아시아 유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유도 8단의 최종삼 회장은 용인대학교를 졸업한 뒤 단국대학교에서 석사, 명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유도인이다. 현재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대한용무도협회 부회장, 대학평의원회 의장직도 맡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부소방서 나강문 서장 취임

광주시소방안전본부 나강문(54) 소방행정과장이 제38대 광주동부소방서장으로 4일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나 서장은 "시민 곁에서 행복지수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안전·인권·문화도시 광주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나 서장은 나주 출생으로 제5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선발돼 광주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장, 북부소방서장, 광산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유치원연합회장에 백희숙씨

백희숙(세운그림 유치원장)씨가 제22대 광주유치원연합회장에 선임됐다.

광주유치원연합회는 4일 "백 원장이 최근 열린 임원선거에서 광주유치원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

백 신임 회장은 유아교육학 박사로 동강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위원을 맡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퇴비도 안주고 농산물 재배 10년 걸렸죠"

세계 최초 온실 자연재배 농법 개발 송광일 박사

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79-14번지, 광주와 장성군 삼서면의 경계에 자리한 '송광일의 자연재배 싱그러운 농장'. 3만㎡에 이르는 이 농장은 자연재배라는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방법으로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다.

농장의 주인이자 세계 최초 온실 자연재배 농법 개발자인 송광일(51) 박사는 "이곳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맛으로 몸으로 느껴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다"고 말했다.

송 박사가 말하는 자연재배 농법은 자연의 섭리대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작물의 생존 능력을 키워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흔히들 유기농법과 헷갈리기도 합니다. 유기농법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뿐, 퇴비를 주고 땅을 경작한다는 점에서 일반재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식물이 놀고먹게 되는 셈이지요. 하지만 자연재배는 퇴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수분(물)도 최소량만을 공급합니다. 땅도 가꾸지 않아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키운 식물은 자생력이 강해져 스스로 근원미생물을 키워 필요한 무기이온을 충당하게 된다. 식물의 잠재된 능력을 깨우는 것이다. 또 자기몸의 전기 값을 올려 토양 순수의 양분을 흡수하는 적극적인 먹이 활동을 하게 된다.

전기 값은 식물 조직내에서 강한 결합력을 만들고 식물이 잘 썩지 않도록 만든다.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 '고전압 식물'이다.

송 박사가 만들어낸 농작물은 금세 차이가 느껴진다. 일반 농산물과 비교되는 탄성만큼이나 혀끝에서 느껴지는 맛은 감탄을 자아낸다.

쉽지만은 않았다. 이 같은 농작물을 생산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초기에는 작물들이 말라버렸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니 주위에서는 무모한 시도라고 만류했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도전했습니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은 약 50여 가지에 이른다. 피망, 파프리카, 청양고추, 토마토, 멜론, 호박, 수박, 마늘, 당근 등 우리가 식탁에서 만나는 채소류는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키워낸 농산물은 매주 5~10여종류씩 200여 특별회원들의 식탁으로 배달된다. 최근에는 아토피에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고 찾는 이들이 늘면서 생산한 농작물이 부족할 지경이다. 하지만 송씨는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 그의 고집 때문이다.

송씨는 "퇴비나 비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이 빠르게 자라거나 모양도 아름답지 못하다"며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슬로우 푸드'는 맛과 건강만큼은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지역 경제·봉사·문화예술체육·효행

'북구 구민상' 4명 선정

〈김선미〉

〈김종성〉

〈노의웅〉

〈정종님〉

광주시 북구는 4일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제4회 구민상' 4개 부문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로는 지역경제부문 김선미(여·43)씨를 포함한 지역사회봉사부문 김종성(61)씨·문화예술체육부문 노의웅(66)씨·효행부문 정종님(여·74)씨 등 4명이다.

(주)티디엠 대표인 김선미씨는 의료기기인 '골 접합기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김종성씨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청소년 선도 등 다양한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펼친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의웅씨는 북구 갤러리 운영 지원 등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한 점이, 정종님씨는 올해 100세인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효행을 몸소 실천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된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는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출신 재미교포 수필가 최미자씨

두번째 수필집 '샌디에고 암탉' 펴내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 수필가 최미자(62·사진)씨가 4일 기자의 이메일을 통해 두 번째 수필집 '샌디에고 암탉'(선우미디어 펴냄)을 내고 현지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광주 출신으로 전남여중고를 졸업한 최씨는 지난 1975년부터 장성 황룡중학교와 광주 중앙여고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쳤으며 공군장교였던 남편과 198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지난 2001년 한국의 한 제자와의 인연으로 2003년 고향을 찾게 되었고 2007년에는 제자, 동창들과의 '30년 인연'을 글로 담은 첫 수필집 '레몬향기처럼'을 내고 다시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일보 2007년 6월5일자 20면 보도)

이번 수필집에는 최씨가 쓴 영문수필도 포함됐다. 1부 'My Life in San Diego'에는 자신이 직접 쓴 영문수필 11편을 실었고 '품속의 복현동산', '타오르는 불꽃' 등 5부로 나눠 총 50편의 글을 수록했다.

이번 수필집에서 최씨는 샌디에고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책머리에는 또 저자의 딸 김수연씨가 영어로 어머니를 위해 쓴 글 '밝은 그늘'(Bright Shadow)도 수록돼 있다.

최씨는 "영어가 아직 서툴지만 한국과 한국어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중앙도서관 행사나 라디오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저의 소식이 고향의 문학도들에게 희망이 될까해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책 판매대금의 일부를 독거노인과 결식아동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오는 5월 29일 경기도 분당의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한국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출판기념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05년 현대문예와 수필시대를 통해 등단했으며, 미주한국문인협회와 재미수필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공립대총장협회장에 김윤수 총장

김윤수 전남대 총장이 최근 제17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 1년이다.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국 41개 국공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김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도 겸임하게 된다. 김 총장은 "총장들의 협력을 토대로 한층 높은 내실화와 경쟁력을 만들고 대학 주요 현안들을 정부와 지혜롭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동신대 최미성 교수 4~8일 전시회

동신대학교 나주천연염색산업 육성사업단(단장 최미성 의상디자인학과 교수·사진)이 4일부터 8일까지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 상품 홍보 및 전시 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업단이 개발한 상품이 한자리에 전시되고, 1인 창업자들의 제품을 특가 판매해 천연염색 상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동광양농협 농·축협 경영평가 '우수'

동광양농협 등 전남지역 5개 농협이 '2010년 농·축협 종합 경영평가'에서 경영 우수 농협 표창을 받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4일 전국 117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상태·농업인 실익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경영 우수 부문에 동광양농협(조합장 서정태)과 강진농협(조합장 김근진)이, 경영 향상 부문에 곡성축산농협(조합장 박왕규), 풍양농협(조합장 김정술), 삼향농협(조합장 나용석) 등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혜수-유해진 커플 결별

〈유해진〉

〈김혜수〉

배우 김혜수(41)-유해진(41) 커플이 결별했다고 양측 소속사가 4일 말했다.

이들의 소속사는 "오늘 오전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결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동훈 감독의 영화 '타짜'에 함께 출연한 이들은 지난해 초 열애 사실을 인정해 '미녀와 야수' 커플로 불렸으나 1년여 만에 결별을 선언했다.

김혜수는 최동훈 감독의 영화 '도둑들'을 준비 중이고 유해진도 영화 '적과의 동침' 개봉을 앞두고 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백종택(화순개인용달 대표)·이순임씨 장남 선계군 홍종룡(광주일보 조사부장)·박영남씨 차녀 지영양=10일(일) 오후 12시40분 광주 서구 웨딩의전당금호 30층(아시아나홀). 062-350-3500.

▲김영진(국회의원)·윤순남씨 장남 의정군 신용봉·공영희씨 장녀 언지양=8일(금) 오후 6시30분 서울 63빌딩 2층(그랜드 볼룸).

▲조동락·오세윤씨 장남 현승군 신문용(목포대 교수)·정유선씨 장녀 지명양=8일(금) 오후 6시30분 서울 삼성동 공항 터미널 3층.

▲정금실씨 장남손혁군 김정길(김정길내과의원장)·최란희씨 차녀 지원양=9일(토) 오후 3시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강남호텔 2층(샴페인홀).

▲김경환·이정희씨 장남 현준(성진지오텍)군 정권태(전남대 보건진료소)·김미애씨 장녀 지현(전남대 언어교육원)양=9일(토) 오후 2시 20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로즈홀)

▲김수공(농협중앙회 상무)·정필연(광주진월초교 교장)씨 장남 윤호군 박동찬(광주MBC 사업국장)·송정(광주보건대 교수)씨 장녀 혜민양=9일(토) 낮 12시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3층 (컨벤션홀)

▲박동만·양연숙씨 장남 정현군 조병관(㈜영진에너지 사장)·김효숙씨 차녀 소현양=10일(일) 낮 12시 40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로즈홀)

동창·동문회

▲목포고 5회 동창회(회장 정병섭) 월례회=5일(화)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정한영) 부산화지시조선산 한식 향사 참례 및 거가대교 탐방=6일(수) 오전 6시 광주상록회관 앞 출발. 010-9615-8567.

▲장흥위씨 광주종친회 2011년도 총회(회장 위인백)=11일(월) 오후 6시 30분 경복궁 웨딩컨벤션 2층 연회장. 011-602-972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모집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대상자=미술미료·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허브다이어트&주열 회원=복부비만·근육유지·체질개선·미쯔이 식주열요법·암세포사멸·면연력상승·자율신경실조증·알레르기증상 개선·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070-8780-5901.

▲길라잡이 프로그램=(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엔자임 코리아 주식회사 관리자=화장품 동종업체 경력자 우대. 062-524-0388.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충만재가복지센타=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 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부음

▲황의창씨 별세 구근·광원·혜경씨 부친상=발인 6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조봉래씨 별세 남신·영선·영진·영복·영미·계순씨 부친상=발인 5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박경섭씨 별세 건·현·원·은·진씨 부친상=발인 5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연임씨 별세 김건임·향진씨 모친상=발인 5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정용선 님(남/87세)
子/子婦 : 정찬성 / 오영자, 찬범 / 전선숙, 창우 / 심오경
女/壻 : 정명자 / 백운기, 명희 / ,미숙 / 추경열
• 호실301호 • 발인:4월 05일
• 장지:순창장덕선영 • 연락처:227-4382

故 추성호 님(남/88세)
子/子婦 : 추재국 / 김효진,은찬 / 이명희
女/壻 : 추은의 / 이이택
• 호실101호 • 발인:4월 05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5

故 정정오 님(남/69세)
子 : 정성국
女/壻 : 정화숙 / 서국열
• 호실401호 • 발인:4월 05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14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방극연 님(남/79세)
子/子婦 : /김미경, 방용현/김정숙
女/壻: 방애영/이형환,순영/이형규,윤영/윤영철
• 발인:4월 5일 09시00분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50-4412

故 김남식 님(남/92세)
子/子婦 : 김병택/변효신, 성수/정영미,용훈,용비,현수
女/壻: 김춘자/ , 복자/김명수
• 발인:4월 5일 08시50분
• 장지:담양 용면 선영 • 연락처:250-4407

故 강문용 님(남/67세)
子/子婦 : 강민성/김정희
女/壻: 강미형/최영훈, 은미/이병환, 민정/노시웅
• 발인:4월 6일 10시00분
• 장지:옥과오산(영락) • 연락처:250-4406

故 조성규 님(남/79세)
子/子婦 : 조연용/김용숙,연기/박정희,연삼/임현미
女/壻: 조연자/김광진, 용숙
• 발인:4월 6일 09시00분
• 장지:순천 주암면 선영 • 연락처:250-4409

故 김순향 님(여/88세)
子/子婦 : 이광세/박순자,상진/박향화,경화/김미향,창화/김형순,원세
女/壻: 이영숙/이종택,명숙/이종욱,진남/이종규, / 이종길
• 발인:4월 5일 12시00분 • 장지:화순 불문사(영락) • 연락처:250-4410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